



성기혁 / 경북대학 산업디자인과 교수
by Seong, Gi-hyeok

약력

-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동대학 산업미술대학원
- 저서 : 색즉시색, 색채기행
- 경북대학 디자인연구소 소장

아날로그 편지

analog letter

하루하루가 매양 펑펑하던 차에 때마침 친구들이 속초로 바람쐬러가자는 전갈이 왔습니다. 월급이 아내 통장으로 들어가니 손을 디밀기 뭣해서 술값을 어찌나 싶었는데, 지난 여름방학에 어느 회사의 로고를 디자인해주고 받은 돈 생각이 퍼뜩 났지요. 그 알토란같은 비상금을 소설책 갈피에 끼워둔 게 분명한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군요. 이 책 저 책 뒤지다보니 곱판내 풍기는 「노자」에서 물경 20여년이 훌쩍 지난 편지 한 통이 나 보란 듯이 머리를 디밀더군요. 대학시절 겨울밤을 꼬박 지새워가며 성냥개비를 깎아 먹물을 먹여 잘디잘게 써내려간 그 연애편지는 어찌된 판국인지 당사자 손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잠자고 있습니다. 얇은 종이 일곱 장에 사랑이란 단어 하나 없이 구구절절 뇌까린 편지는 민망하면서도 먹먹합니다. 그게 남세스려운 건 그녀가 딴 녀석에게 시집간 탓일까요?

드라마 대장금에 이런 대사가 나오지요. 드시는 분의 입가에 미소가 도는 걸 생각하면서 이 음식을 만들었노라고. 요리가 이리할진대 그림이나 글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보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표현은 형식과 내용을 갖기 마련인지라, 아름답고 몽클해야 감동이 마중 나옵니다. 물론 능숙한 표현은 도구를 잘 다루는 게 기본일 테지요.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뭐니 뭐니 해도 손이 자유롭다는 점일 겁니다. 손으로 도구를 만들고 그 도구가 문화를 만들어 온 셈이지요. 허나, 어인 일인지 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에 도구를 다루는 손은 퇴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붓은 키보드로 바뀌고 자잘한 가전제품이 고장 나면 고칠 엄두가 안날만치 뭐가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이미 칼질을 마친 생선으로 요리하고 전화 한 통화면 바로 먹을 수 있게 배달까지 해줍니다. 사전을 뒤지는 것도 귀찮아 전자사전을 씁니다. 기계한테 지시를 내리는데 익숙한 손은 백수(白手)를 닮아갑니다.

요즘 학생들은 글씨가 괴발개발인 경우가 허다하지요. 어떤 녀석이 우겨대길 천재는 악필이라고 뇌까리고, 재주 많은 인간이 가난하다고 폄하하는 축도 더러 있습니다. 시험지를 채점하다보면 자꾸 입이 마르곤 합니다. 온라인 시대에 웬 글씨 타령이냐고 타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편리함과 무한복제와 즉시성으로 무장한 디지털은 우리를 코너로 몰아갑니다. 어찌면 더 이상 빠져나올 방도가 없을 듯도 합니다. 어느 학자가 그러더군요. 현대문명은 브레이크 터진 자동차 같대나요. 속도가 미덕인 이 때, 편지지 꺼내놓고 연애편지를 쓰는 열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탁월한 이메일이 있으니깐요. 게다가 핸드폰 문자질만으로도 연인의 마음을 흔들어주기에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진도가 빠른 연애는 끝장도 빠르기 마련입니다. 재빠르

글씨는 인격이라고 부르짖는 나더러 내 제자들이 콧방귀 끼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갖가지 컴퓨터용 서체는 인간미가 가신 기성품입니다.
 상품이기도 하지요. 시중에 범람하는 이 나라 디자인은
 하나같이 컴퓨터 서체로 대량생산 되고
 그걸 만드는 디자이너들도 손으로 그려내고
 글씨를 만드는 일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서늘합니다.
 그 오랜 연애편지가 죽치고 있던 「노자」에는 이런 대목이 담겨 있더군요.
 ‘말이 많으면 자주 궁해진다. 그 속에 지키느니만 같지 못하다’
 그러니, 노자 말씀을 믿고 이쯤에서 말을 줄이는 것도 좋겠지요.

게 여러 이성을 섭렵하는 작업이 짧은 인생에 훌륭한 축적일지 모르겠으나, 그 반면에 워낙 재주가 메주인 나는 느린 연애가 좋다고
 우겨봅니다. 남녀지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종족번식 본능이 엄연하니 18세기의 연정이나 21세기 연애는 매한가지일 겁니다. 시쳇말로
 본능에 충실하라고 강변하더라도 인간이 짐승이 아닌 이상 낭만과 감동이 없는 인생이 멋질 리 없겠지요. 비단 연애뿐일까요.

디지털은 참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둔한 탓에 그놈의 디지털에 자꾸 숨통이 막힙니다. 인터넷은 가상이고 망상의 세계입
 니다. 현실로 착각하는 허상 속에서 우리는 망연히 꿈꾸고 착각하며 익명의 숲 속을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궁상을 떠는 내
 가 고리타분한 구시대의 유물인 탓일 게지요.

석기시대 동굴에 그림을 남기던 사내의 후손들은 더욱 솜씨를 연마해 그릇을 빚고 종이도 만들었지요. 글씨를 써서 마음을 전하고 작
 은 매화 그림 하나 곁들여 정인이나 친구에게 마음을 보내곤 했대지요.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은 아름답습니다. 만든 사람의 마음씨가
 담겨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정성들여 글씨를 꾸러가는 동안 손은 뇌를 움직이고 뇌는 손끝으로 스며서 저절로 뜻내가 건너오지요. 살아
 있음의 증거입니다.

내가 하는 디자인 작업은 어지간하면 손 글씨와 붓으로 그려낸 이미지로 느낌을 끌어낼 요량으로 수작을 부리곤 합니다. 그걸 스캔하
 고 텍스트를 가미하느라 컴퓨터를 붙들고 일하다보면 뒷골이 쭈실 적이 많습니다. 그럴 적엔 붓을 꺼내들고 화선지에 그림도 그리고 낙
 서처럼 글을 써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림과 글씨를 곱게 접어 우표를 붙이고 우체통에 넣어 감동을 전할 곳이 이젠 없습니다. 향기 가신
 아내에게 연애편지를 보낼 만치 몽롱하지도 않지요.

글씨는 인격이라고 부르짖는 나더러 내 제자들이 콧방귀 끼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갖가지 컴퓨터용 서체는 인간미가 가신 기성품입
 니다. 상품이기도 하지요. 시중에 범람하는 이 나라 디자인은 하나같이 컴퓨터 서체로 대량생산 되고 그걸 만드는 디자이너들도 손으로
 그려내고 글씨를 만드는 일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서늘합니다. 그 오랜 연애편지가 죽치고 있던 「노자」에는 이런 대목이 담겨 있더군요.
 ‘말이 많으면 자주 궁해진다. 그 속에 지키느니만 같지 못하다’ 그러니, 노자 말씀을 믿고 이쯤에서 말을 줄이는 것도 좋겠지요. ■